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 초·중·고교생 학력 신장 '청사진'

### 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도내 초교 2학년부부터 고교 1학년까지 진단평가 우선 실시  
전담교사 배치·학습더딤 맞춤형 지원학교 운영 등 추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학생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서거석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김승 교육감은 1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학력 진단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전북 지역 초등학교 2학년부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충남대에서 개발한 진단보정시스템 등 다양한 평가도구를 제공해 학교별로 자율 선택에 따라 내년 9월 경에 기초학력을 진단한 뒤, 분기별로 향상도 평가를 세 번 더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제공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서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린 서로 잘하는 것을 존중해 주는 문화가 확산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14개

지원청과 함께 학부모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갖는 등 학생 학부모들이 진단평가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도내 농·산 어촌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에 비해 기초학력이 다소 부진하다는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진단평가를 통해 본인의 수준을 정확히 진단해 타당한 기초학력을 세워주기 위함이다. 특히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모든 학생은 진단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별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교별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계획의 초점을 기초학력 보장에 뒀다. 이 과정에서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로 이뤄진 기초학력 전담교사 100명과 보조교사 300명 배치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 운영 △학습더딤 맞춤형 지원 두드림학교 운영 △중·고 학생 교과·정서지원 방학캠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김승 교육감이 19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초학력신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위해 수학 클리닉을 운영하고, 학생 주도 국어·영어·수학·과학동아리 500여 개를 지원하는 등 세부 프로그램도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청과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초학력 전담교사 40여 명을 배치하는 등 기초학력 향상의 근거지로 삼기로 했다. 학력지원센터는 기초학력 책임

지도에 관련 컨설팅, 난독·경계선 지능 대상학생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 성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 보충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단위 다중지원팀 등을 통해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과 수업을 집중 지도한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입 지원을 위해 진학전문가를 양성하고, 대입진학 지도 지원단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ll in One' 진로진학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상시 상담을 운영하게 된다. 또 도내 7개 권역에 진학상담실을 마련해 상시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고 학생 대상 맞춤형 상담도 확대한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업혁신 동아리 및 연구회 100개 운영 △생애주기별 교사 연수 △수능 평가문항 개발 연수 △수업혁신 선도교사 100명으로 이뤄진 창의·융합 수업 지원단 운영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기초학력을 무시하고 다른 어떤 것을 쌓는다는 것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향상 지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북 학생들의 학력을 반드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기자



"소화전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주완산소방서 소방관들이 19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소방 훈련에 참석해 역사박물관 직원들에게 소화전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흡덕터, 보일러 사용 일반주택으로 확대... 3900가구 규모

### 도, 취약가구 가스누출 사고 재발 방지책 발표

무주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 사건 발생 따라  
도내 전 읍면동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보급  
김관영 도지사 "안전, 도민 행복의 기본 요건"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취약가구 가스 누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지난 9일 발생한 무주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 사건에 대한 예방조치로 보인다. 지난 9일 무주에서 혼자 거주하던 80대 어르신 댁에 자녀들이 모였다가,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는 경찰 조사 결과 보일러 연통이 떨어져 그 사이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주택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전북도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19일 발표했다. 먼저, 보일러 점검 및 수리, 연통 청소 노후 부품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흡덕터' 사업과 연계해 일반주택으

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다. 보일러 가스 누출사고의 대다수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 시설미비로 인해 발생해 이에 따른 보일러 시설 점검 사업을 확대한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됐었던 기존 '흡덕터' 사업에서 보일러를 사용하는 일반주택으로 확대하여 총 3,900가구를 점검한다. 또, 도내 전 읍·면동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보급하고 단독주택 전기구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누출여부를

점검한다. 2020년 8월 이후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G) 판매 시는 법령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가스공급자가 매년 1~2회 의무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무주 건 같은 기밀보일러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도는 도내 243개 전 읍면동에 일산화탄소 가스누출 감지기 5대씩 총 1,215대를 보급해 대상 가구에 대해 방문 점검을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또한 지급된 일산화탄소 누출 점검 장비를 활용, 집중안전점검이나 시기·계절별 안전점검시 일산화탄소 누출도 포함해 매년 점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 법령을 개선 건의를 통해 앞으로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기존 건축물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정비전인 도민 행복의 달성을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안전에 관해서는 지나칠만큼 과하게 선제적으로 접근 하겠으며, 오직 민생을 원칙으로 도민들이 도와 시군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가치 소비 확산

전북도-경진원, 내달 말까지 크라우드펀딩 기획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가치 소비 확산을 위한 2022년 전북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기획전을 오는 11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획전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에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네이버 공익재단 해피빈과 함께 시작한 행사로 올해 3년차를 맞이한다. 그동안 15개의 펀딩 프로젝트가 열렸으며, 5,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여 펀딩금액 1억 7,900만원을 달성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모금자가 인터넷에 프로젝트를 게시하면, 프로젝트의 의

미에 공감하여 동참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이 후원하고, 모금자는 후원금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실행한 후 펀딩 참여자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크라우드펀딩은 창업기업이 투자금을 조달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운영사업을 통해 온라인 판매에 처음 도전하거나 비대면으로 판로 전환이 필요한 기업,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신제품을 보유한 업체 등을 위주로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하여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주고 있다. /김경수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 NS쿱페스타

## 2022 익산

2022 10.20.목 | Harim First Kitchen

주최 NS NS홈쇼핑 익산시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림그룹